

‘디자인’에서 이 시대 문화현상을 읽는다

이미지·디자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분석을 시도한 책들

‘이미지가 세계를 지배한다’ 디자인은 21세기 ‘경쟁력의 기초’라고 회자될 만큼 디자인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디자인의 영역은 평면에서 입체로, 순수예술에서 대중미학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생활양식과 건축, 영상과 전신예술(Telecom Art)에도 파급되고 있다. 이렇듯 디자인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무성한 것에 비해 학계의 연구성과는 그다지 풍성하지 못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21세기를 지향하는 디자인, 영상 디자인에 관한 진지한 책들이 출간되고 있다. 디자인은 사회문화를 해석하고 창조하는 중요한 문화현상이며, 디자인 이해는 곧 한 시대의 문화읽기와 통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미지와 디자인도 커뮤니케이션

《서양미술사》로 유명한 미술사가 에른스트 고프리치의 사상과 생애가 담긴 《이미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은 프랑스 누벨 옵세르바튀르 기자이자 미셀 푸코의 전기 작가인 디디에 에리봉이 대담, 정리한 책으로, 고프리치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프로이트와 칼 포퍼를 길라잡이로 삼았다는 그의 학문적 배경과, 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 비엔나에서 태어나 전쟁과 망명 등 굴곡을 겪은 인생여정도 들여다볼 수 있다. 폰 솔로서, 칼 포퍼, 코코슈카 등 당대 지식인들과의 만남에 얽힌 젊은 시절의 회고담이 격동기 서구 지성사의 흔적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서양미술사》의 유명한 첫문장 “미술이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미술가만이 있을 뿐이다”에 대해 고프리치는 “각각의 그림은 섬처럼 있을 뿐이며 ‘미술’이란 우리가 만들어 낸 범주다. 또 ‘미술’이란 말엔 서로 다른 의미들이 결부돼 있다”고 이 책을 빌려 설명한다. ‘예술은 모방’이라는 플라톤적 관점을 벗어나 환영의 재현이라는 미술논리를 주창해 온 고프리치는 그림의 의미작용이 심리적인 틀뿐 아니라 당대의 문화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민수 교수(서울대 산업디자인과)가 펴낸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는 디자인에 대한 이론과 현상을 분석한 문화비평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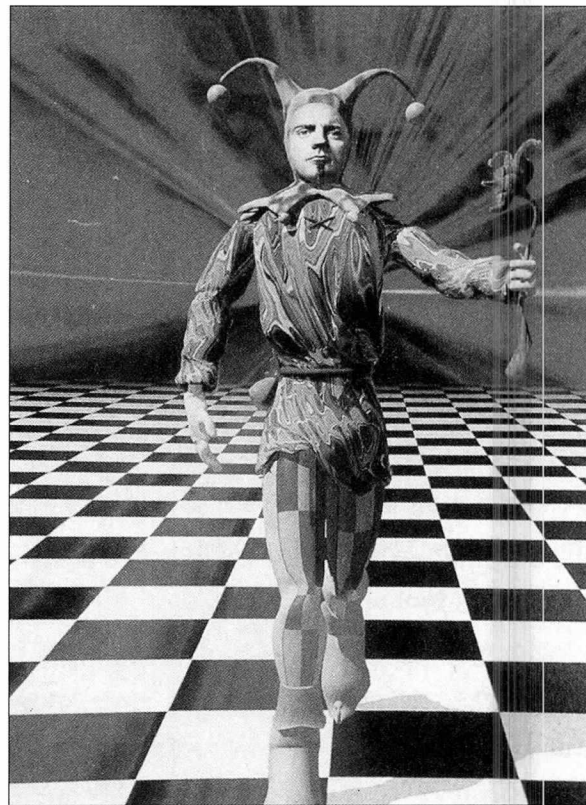
디자인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생활양식 건축·영상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 연구성과는 풍성하지 못했다. 최근 나온 관련서들은 디자인이 사회문화를 해석하고 창조하는 중요한 문화현상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디자인은 어떤 방식으로 일상의 삶과 연결되는가, 사람들은 디자인된 공간·사물·이미지를 통해 어떻게 변하는가, 왜 디자인은 변하는가 등 디자인에 담긴 철학적·문화적 의미를 분석하고 우리 문화의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짚고 있다. 디자인과 대중문화, 상품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분석,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디자인, 건축과 시각문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디자인 등을 각론으로 다루고 있다.

김교수에 의하면 디자인은 공동체 의식과 가치를 유지 발전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가져온다. 이미지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현대사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는 것이다. 책 후반부의 ‘문화해석력과 경쟁력’에서는 철학과 정책 부재의 한국 디자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았다. 21세기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서 김교수는 먼저 정부와 기업이 디자인에 대한 철학을 가질 것과 산업정책에서 문화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디자인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미술연구소(소장 홍선표)에서 펴낸 《디자인? 디자인!》도 같은 맥락의 책이다.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디자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무엇을 디자인하는가, 어떻게 디자인 하는가를 4장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디자인은 기술의 발달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소비심리 및 마케팅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그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카메라와 컴퓨터, 멀티미디어와 같은 영상 미디어의 보급과 이에 대한 폭넓은 관심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는 ‘할리퀸’의 어릿광대 모습을 통해 지식의 형태와 사회적 인간본성을 비유한 적이 있다.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중에서.

디자인·영상디자인 연구서

도서명	저자	역자	내용	출판사
이미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들	디디에 에리봉	정진국	고프리치의 사상과 생애	민음사
21세기 디자인 문화탐사	김민수		디자인 이론과 현상분석	솔
디자인? 디자인!	한국미술 연구소		디자인의 이론과 실기	시공사
영상 디자인	한국미술 연구소		영상매체의 장르속성과 활용	시공사

기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영상 디자인을 예술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영상매체와 영상산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기대를 요청한다.

영상디자인과 매체미학

시공사의 ‘영상미디어파일’ 시리즈인 《영상디자인》은 디지털·사진·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컴퓨터그래픽·멀티미디어와 같이 각종 영상매체의 영상 디자인에 관한 입문서다. 영상 디자인에 무게를 두었다기보다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영상매체의 속성·특질·활용·의의 등에 대해 집필한 소개서에 가깝다. 영상디자인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미개척 분야로 남아 있어 그 내용의 깊이와 비평적 안목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인 탓이다.

인류역사와 더불어 수천년 동안 발전해 온 다른 예술영역과 비교해볼 때 영상의 역사는 1백년 안팎의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영상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것도 1990년대 이후이다. 영상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영상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영상 디자인과 영상미학이라는 용어는 유행처럼 번졌지만 그 기초 분야에 대한 연구는 태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김문환 교수(서울대 미학과)의 《레오나르도를 되살린다》(신구문화사)와 매체미학에 대한 학계의 다각도의 연구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과학·기술과 예술미학이 결합되고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미래예측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매체미학이나 영상미학 등으로 분류될 만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접어든 셈이다. — 마정미 기자